

아래 글에서 나온 대회 예선전 후기

<https://blog.naver.com/hyeonjun7/222472520123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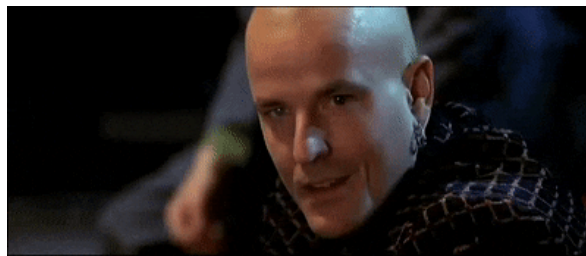
2021년 8월 16일

2021 OHHC : 오로나민 하스스톤 히어로즈 챔피언십이라는 이름의 전장...

[blog.naver.com](https://blog.naver.com)

결론부터 말하자면

예선 첫 경기에서 꼴등으로 광속 탈락했다



출처

ㅋㅋㅋㅋㅋㅋㅋㅋ

예선 참가 조 인원수가 애매해서 286명 중 222명은 바로 128강에 진출하고

64명은 128강 진출용 경기를 해서 올라가는데

하필 우리 조가 그 64명에 걸렸다

전장 경기는 4조 8명(2인 1조)이 3경기를 해서

대회 점수표에 따라 총점이 높은 상위 2조가

다음 경기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



1경기

첫판에는 나와 내 친구에게 통계 승률이 높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영웅이 나와서 그런지  
나 7등 친구 8등, 우리 둘 다 최하위를 기록했다  
반전이 필요한 상황



2경기

나 4등 친구 6등

덱 트레이커 프로그램으로 승률을 예측했을 때 내가 유리한 경기가 많았는데 진 게 많아서 너무 아쉽다  
친구는 여기서부터 이전 경기로 인한 멘탈 이슈 때문인지 실수가 잦았던 것 같다고 했다



3경기

나 2등, 친구 4등

점점 등수가 잘 나오긴 했지만 처음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4조 중 4위로 마무리했다

운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긴 하는데...

사실 하스 하는 사람들 국룰이 지면 운 없다고 하는 거라... 운도 실력이지 뭐  
실력 문제가 더 컸다고 생각한다

수상권 직전에 떨어져서 아쉬운 것보다

차라리 일찍 떨어진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며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 있다

너무너무 아쉽긴 한데 어쨌든 졸업 전 좋은 추억 하나 남기게 되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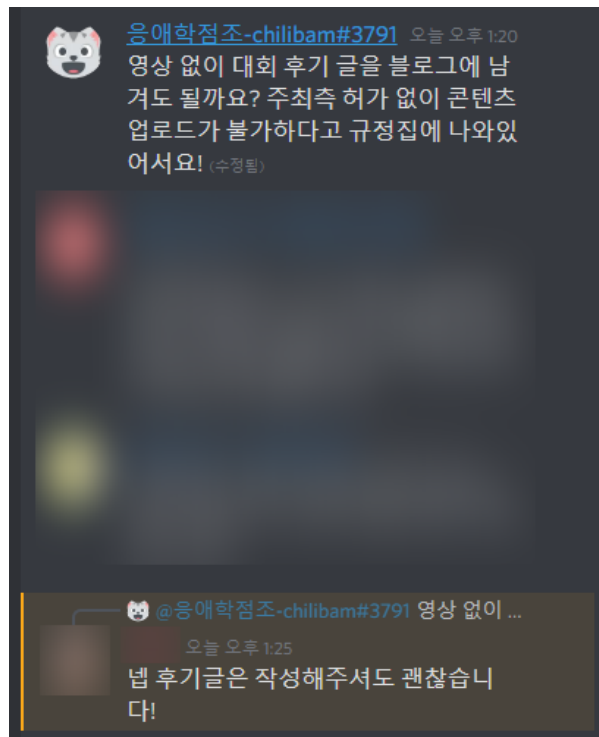
꽤 오래전부터 제대로 된 게임 대회 한 번 나가보고 싶었는데  
좋아하고 나름 잘하는 게임으로 대회 나가게 돼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  
내가 하고 싶어서 전장 안 하는 대학 친구 꼬드겨서 출전한 거라 ㅋㅋㅋ  
상금 욕심도 나고 책임감도 생기고 해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다

매일 저녁마다 틈틈이 디스코드로 친구와 마이크/화면 공유하며 게임하고  
전장 관련 영상들 보고 중요한 내용들 한글 파일에 정리해서 친구에게 설명도 해주고 그랬다  
그렇게 잘 한 건 아니지만 정리한 게 아까워서 첨부해본다  
MMR 7,500 넘으면 안 봐도 될 듯

전장 핵심 정보.hwp

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 불법 촬영물 등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.  
잠시만 기다려주세요

요새 살짝 정신줄 놓고 지냈는데 오랜만에 제대로 뭐 하나에 몰입해본 것 같다  
이제 대회도 끝났으니 잠시 게임 지우고 갓생(God-生) 살아야지



규정집에 저작권 관련 규정이 있어 후기 글을 못 쓰나 했는데 다행!